

기획



관매 8경 중 하나인 하늘다리 아래로 펼쳐진 아찔한 풍경이 장관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선녀도 쉬어 갔다던 하늘다리 구름위 걷는듯 기분도 두둥실



〈36〉 관매도 마실길(下)

관호마을~양덕기미~하늘다리



섬에서는 시간도 쉬어간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관매도는 4.3km 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라 서너 시간이면 돌아보기에 충분하다.

섬 오르편으로 관호마을이 포근히 안겨있다. 선착장에서 출발해 해안로를 따라 걸으면 금방 닿을 수 있다. 포구 앞으로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들이 점점 펼쳐져 있고 그 바다를 방조제로 감싸 전형적인 어촌 풍경을 연출한다.

관호마을 정자에서 우실~우물~마을돌담길을 걷는 1km의 마실길은 소박하고 정감 있는 마을 풍경을 벗삼아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길이다. 곳곳에 쉼터가 조성되어 쉬어갈 수 있고 수줍게 고개를 내민 꽃들도 볼 수 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인정 많은 마을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더 좋아진다.

마을 옆 작은 밭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내년 봄에 수확할 속 모종을 심고 있었고, 몇 분은 밭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돌담길 끄트머리에서 만난 마을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했지만 지금은 몇 남지 않아 마을이 조용하다"며 "노인네들만 남아 있어 밭 벌어 먹는 것도 힘에 부치다"고 말했다.

마을 뒤편에 자리한 공동우물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들맞도 일품이었다.

가파른 마실길(봉선화길)을 지나면 양덕기미

쉽터다. 이곳에는 독특한 형태의 돌담 '우실'이 있다. 성벽 모양을 한 우실은 관호마을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돌담으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성(聖)과 속(俗)의 경계담으로서 민속신앙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 흔들의자가 있어 그네를 타면서 바다를 조망하는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어릴 적 꿈꿨던 보물섬 같은 섬 관매도에는 구석구석 아름다운 풍경을 감추고 있다.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하며 수많은 세월을 이어왔다. '관매 팔경'이 그 주인공이다. 팔경 중 6곳이 이곳 관호마을 주변에 있다.

양덕기미 쉼터를 넘어 내리막길을 따라 조금

어가면 저절로 불이 꺼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곳이다. 아찔해도 물에 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배를 타고 나가서 봐야 한다고 한다.

다시 숲길을 30여 분 오르니 관매도의 명물(제5경)인 하늘다리가 나온다. 옛날 방아섬에서 방아 쪼던 선녀들이 날개를 벗고 쉬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다. 마치 칼로 절단한 것처럼 갈라진 섬과 섬사이 높이 50여 미터, 3m가량의 틈새에 다리를 놓은 하늘다리는 감탄사를 자아낸다. 왜 1박2일 출연진들이 호들감을 떨어뜨리지 조금 이해가 됐다.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길, 관호마을 정자 앞에

## 섬 구석구석 재미난 전설 찾아 유유자적 한나절

## 아기자기 능선 푸른바다 어울려 행복한 섬 여행

걸으면 제3경인 돌모와 공돌을 만난다. 이곳 지명 양덕기미(왕돌끼미)의 유래를 추론해볼 수 있는 곳이다. 3m에 이르는 공돌(공깃돌의 방언)은 옥황상제가 아가던 공깃돌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으며 실제 돌에는 금직만 손자국 모양이 나 있어 전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돌모는 공돌을 가지러 간 하늘장사가 돌아오지 않아 옥황상제가 돌무덤을 만들어 가두었다는 전설을 간직한 곳으로 돌이 꼭 묘처럼 생겨서 불은 이름이다.

인적이 없는 한적한 바닷가길은 곧바로 숲길로 이어진다. 파도소리와 새소리, 확 트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장관이다.

공돌과 돌모 지척엔 할미도깨비가 나온다는 제4경 할미중드랭이굴이 있다. 햇물을 들고 들

서 만난 주민들이 별치역전과 자연산 돌미역을 팔고 있었다. 이곳 특산품인 만큼 품질도 좋아 보였다. 해풍에 말린 미역을 갖고 나온 아주머니는 "방승 덕에 지난 여름 섬 전체가 시골벽적했다"며 "많은 사람이 찾아와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주니 흥이 저절로 난다"고 웃어 보였다.

관매도는 마실길과 산책로 외에 해안을 둘러가며 탐방로를 갖추고 있다. 관호마을에서 하늘담을 거쳐 마을로 돌아오는 4km 남짓의 탐방로는 천연 그대로의 섬 풍경을 즐기며 걸기에 좋은 길이다. 여유가 있다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서돌바글 꼭포'(제6경), '다리어'(제7경), '벼락바위 '하늘담'(제8경)을 눈에 담아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하늘다리로 향하는 한적한 숲길. 길은 조금 가파르지만 파도소리와 새소리, 자연을 벗삼아 느끼게 걸기에 그만이다.

http://bike.kjmedia.co.kr

자전거와 함께 농촌사랑을

2011 Green

# 자전거축제

2011년 11월 5일(토)~6일(일)  
광주상무시민공원

종 목 | 거북이자전거행진(비경쟁 4.5km), 로드레이싱(경쟁 50km)  
주 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주 관 | 광주광역시 사이클연맹,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자전거연합회  
후 원 | 농림수산식품부 KFA 한국마사회  
교통지원 |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나주경찰서  
문의 | 062-220-0541, http://bike.kjmedia.co.kr 게시판

### 거북이자전거행진

- 1. 일 시 : 2011년 11월 5일(토) 오후 3시 출발, 오후 4시 30분 종료
- 2. 집 결 : 광주상무공원 (출발, 끝인지점 동일) 오후 2시까지 출발선 대기
- 3. 코 스 : 비경쟁 퍼레이드 4.5km  
출발(광주상무시민공원) - 광주광역시청 - KBS방송국 - 상무병원삼거리 - 여성발전센터 - 서부경찰서 - 상무시민공원 도착 (※제한시간 : 오후 4시 30분까지)
- 4. 참가비 : 무료(10월 20일까지 홈페이지 참가신청 마감)
- 5. 지급품 : 참가기념품(후추 공지), 배변호(현장배부)
- 6. 비경쟁 퍼레이드 행사입니다. 순위 및 기록결정은 없습니다.
- 7. 시상내역  
(1)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2) 특별상(행운상, 포토제닉상)

### 로드레이싱대회

- 1. 일 시 : 2011년 11월 6일(일) 오전 8시 30분 출발
- 2. 집 결 : 광주상무공원 (출발, 끝인지점 동일) 오전 7시 30분까지 출발선 대기
- 3. 코 스 : 경쟁 50km (별첨지도 참고)  
출발(광주상무시민공원) - 동산대야교차로(우) - 대신삼거리(우) - 평동역 - 서창교 - 도차 (광주상무시민공원) ※제한시간 : 2시간 30분 (11시 주행 종료)
- 4. 참가비 : 1인당 30,000원  
- 광주·전남 외 참가 단체팀(10명 이상)에게는 팀당 여비 10만원 지급
- 5. 지급품 : 참가기념품(후추 공지), 중식, 간식, 배변(2개), 기록측정침  
- 배변 및 기록측정침은 사전에 배송해 드립니다.
- 6. 기록측정 : 기록 측정용 칩 사용
- 7. 순위 및 공식기록은 넷타임(기록침)으로 결정. 공지
- 8. 시상내역  
(1) 개인(연령대별 구분 각 부문 시상, 상금+상장+트로피)  
• 남자4개 부문 : 1위(50만원), 2위(30만원), 3위(20만원), 4위(10만원), 5위(5만원)  
• 여자2개 부문 : 1위(30만원), 2위(20만원), 3위(10만원), 4위(5만원), 5위(5만원)  
(2) 단체  
• 참가단체상 : 다수참가팀 순으로 5팀, 팀당 10만원  
• 원거리참가단체 여비지원 : 10명 이상 팀 (광주, 전남 외 지역, 팀당 10만원)  
(3) 특별상(행운상, 포토제닉상)

### 농촌사랑축제

- 1. 일 시 : 2011년 11월 5일(토) ~ 6일(일) 이틀간
- 2. 장 소 : 광주상무시민공원
- 3. 내 용 : • 농·축·수산물 홍보관 운영  
• 기타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현장에서 푸짐한 행운상, 이벤트상을 드립니다.)

